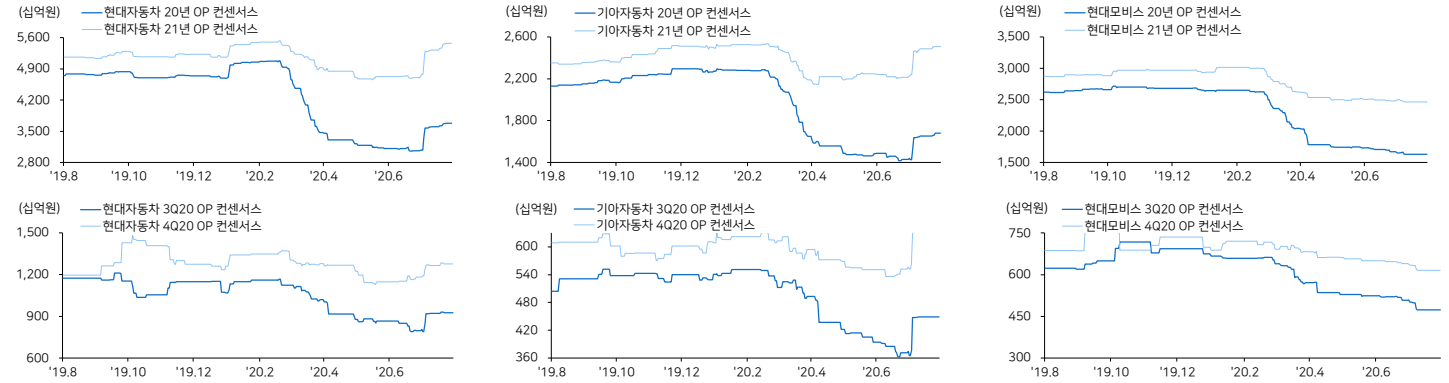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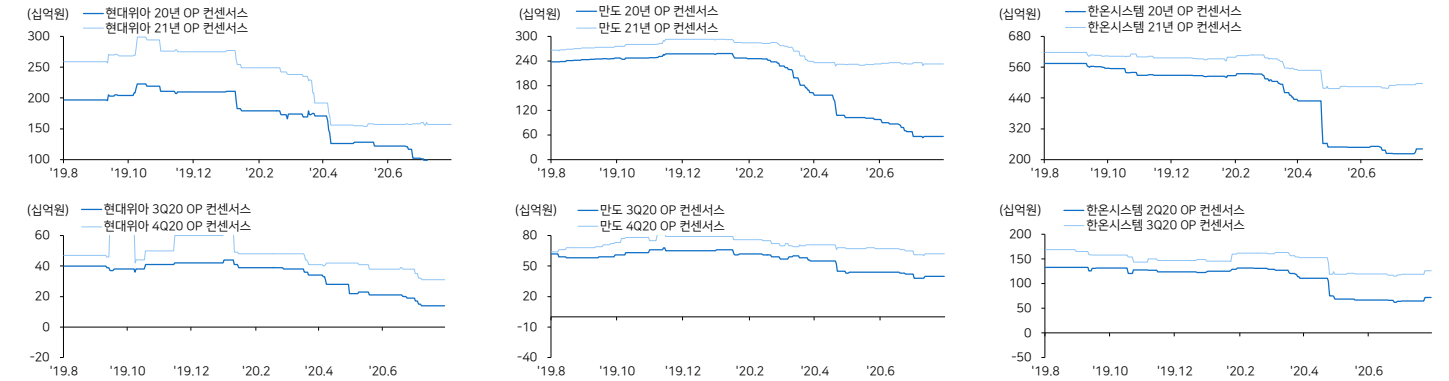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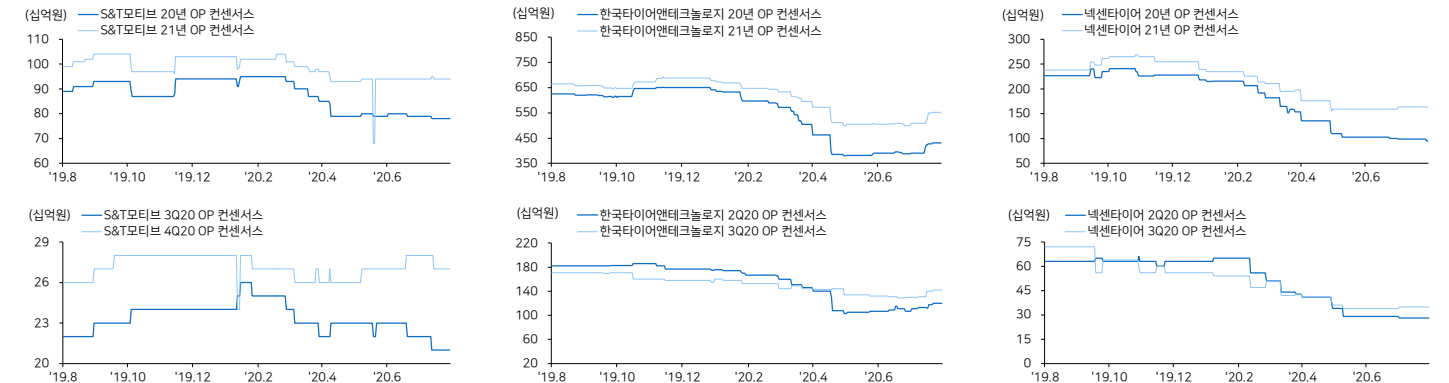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마스크 '테슬라' 오토파일럿, 제다이급 기술자 300명 이상 '혁신 개기' (글로벌이코노믹)

환경기술 전문매체 클린테크니카와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인터뷰에서 그는 오토 파일럿 개발팀을 영하 스타워즈의 제다이 기사에 비유하며 이처럼 한껏 지켜줬음을. <https://bit.ly/31YbKcw>

### '카니발' 나 머저 '현대·기아차, 계속 되는 국산 타이어 외면 (ZD넷코리아)

기아자동차가 이달 출시를 앞둔 4세대 카니발 순정 타이어(OET) 공급사를 수입 브랜드로 선택하면서, 국산 타이어 업계와 현대차그룹 간 거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음. <https://bit.ly/3g41B2P>

### 기아차, 해외 모빌리티 업체와 오픈 이노베이션 '속도전' (아시아경제)

기아차가 해외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과 오픈 이노베이션에 속도를 내며 전략 다각화에 나선, 차량 공유·호출·대여 사업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과 협업해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 거듭나겠다는 전략. <https://bit.ly/3kV5Tfm>

###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1회 충전으로 1026km 달렸다 (경상일보)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이 한 번 충전으로 1000km 이상을 주행하며 뛰어난 성능과 상품성을 입증,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 3대가 7월 22~24일 독일에서 실시된 시험주행에서 각각 1026km, 1024.1km, 1018.7km를 달렸다고 밝힘. <https://bit.ly/3awTQgP>

### FT '일본 정부, 혼다-닛산 합병 추진 검토' (한국경제)

일본 정부가 닛산과 혼다의 합병을 유도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 자동차 업계의 판도가 자율주행 EV로 전환하면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급격하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 <https://bit.ly/2Cyxx2EG>

### 기아차 '카니발' 출격, 신차용행 이어간다 (뉴스타모토)

기아자동차가 미니밴 카니발의 신형 모델을 출시, 카니발은 최근 사전계약 첫날 신기록을 세우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기아차 신차용행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https://bit.ly/2Q0FRdF>

### '허리띠 띠라' 현대차 3사...2분기 비용절감 '총력' (디지털타임스)

현대차그룹 3사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올 2분기 판매관리비가 전년보다 대폭 줄었음. 이들 3사는 배당금, 자금조달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 <https://bit.ly/3g55c04>

### 하반기 자동차 글로벌 수요 회복 조정 보인다 (교통신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한국은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 출시 효과로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내수가 증가세를 보임. 상반기 생산도 6월에는 감소폭이 완화. <https://bit.ly/3kVtvti>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